

병원탐방

# 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 물리치료실

초·중·고교의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하여 각종 검진과 진료, 연구 및 조사분석 통계, 양호교사들에 대한 보건교육 및 급식학교 위생점검, 학교환경위생의 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학교건강관리소는 해방지후인 1945년 9월 7일 서울 시립보건소로 서울시청 의무실내에서 발족했다.

1970년 현재의 청사인 종로구 신문로 2가 2-64로 이전 1974년 11월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담당할 부속의원을 개설하였다.

1975년 부속의원을 부속병원으로 개편하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건강관리소는 건강관리부와 부속병원 서무과로 부속병원은 종합병원의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입원실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봄이아지만 아직은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학교건강관리소 부속병원 물리치료실을 찾은 것은 3월 3일 오전이었다.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진 병원이 아니기에 이곳 병원을 찾기에 꽤나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이곳 실장님으로 계시는 홍성렬 선생님은 첫인상이 뛰어나 다정해보였다.

81년도 1월부터 이곳 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환자로부터의 신뢰감을 강조하시며 항상 친절과 봉사로 치료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신다. 처음 물리치료실의 기기는 초음파 뿐이었으나 연차적인 기기 구입으로 이제는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기기를 빼놓고는 종합병원 수준으로 받들음 하였다. 입원실이 없는 관계로 모든 환자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다른 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할 만한 특징이다.

하루 통원치료 환자가 30여명을 넘고 있으며 70% 이상이 요통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 각 학교 운동선수라면 한번쯤은 이곳 물리치료실을 찾은 적이 있을 정도로 운동선수의 이용율이 높다.

스포츠로 인한 운동선수의 손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홍 선생님은 작년에는 “스포츠 손상의 통계적 분석”이란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완쾌된 운동선수 중에서 소속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프로팀과 실업팀 또는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것을 보면 물리치료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씀 하신다. 문학과 사진에도 남다른 활동과 취미로 치료실 벽에는 환자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진들을 걸어놓아 마치 사진전시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기기의 확충으로 현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홍

선생님의 눈빛에는 강한 집념이 깃들어 있었다.

한편 임상실습을 위해 이곳에 근무하시는 김은희 선생님은 비록 통원치료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적지 않은 환자수라 말하시며 흠이라면 질병 케이스가 조금은 단순하다고 지적하신다. 그러나 물리치료 중에서도 요통으로 인한 물리치료의 일인자가 되기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리라 말씀하신다.

짧은 시간에 취재를 마치느라고 충분한 병원탐방이 되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두 분의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설때는 바람도 조용하고 봄다운 햇살이 두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학교건강관리소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칠까 한다.

